미국의 진면모 1

합중국이 아니라 식인종제국이다

합중국이 아니라
식인종제국이다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5(2016)년

머 리 말

《미국을 발견한것은 좋으나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것이다.》

이것은 미국사람들자신의 솔직한 고백이다.

허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현란하다고 해도 실체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원래 미국은 인디안의 피바다우에 생겨난 나라이다.

세상에 나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파괴와 살륙으로 엮어지고 피로 얼룩진 력사를 가지고있다.

력사의 매 단면들마다에서 추악한 면모를 낱낱이 드러내놓으며 오늘에 이른 미제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계 각곳에서 인류를 롱락하고 위협하고있다.

미국의 진면모는 과연 어떤것인가,

이 책들에 서술되는 내용들은 미국의 실체를 밝히는 극히 일부분의 자료에 불과한것이다.

하지만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끼는것처럼 비록 자그마한 자료일지라도 미국의 진면모를 충분히 펼쳐보여줄수 있으리라고 본다.

차 례

미국의 태아

미국이라는 나라의 태아는 1607년 북아메리카에 영국의 첫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이 구축된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영제국은 에스빠냐인들과 네데를란드인들이 아메리카땅에 먼저 들어가 서인디아제도와 메히꼬, 남아메리카의 여기저기에 식민지를 펼쳐놓은 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서두르며 건달군들과 전과자들을 위주로 하는 이민들을 떼지어 파견하는것으로부터 《신대륙》에 발을 들이밀게 되였다.

남들보다 한발 늦게 아메리카대륙에 들어선 영국국적의 앵글로색슨족이민들은 오늘날의 버지니아지역에 제임스타운이라는 거점을 수립하고 그곳에서부터 이미 《신대륙》에 먼저 와서 선손을 쓴 다른 유럽렬강들의 통치령지들과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앵글로색슨족이주민들의 령토팽창은 특히 아메리카원주민인 인디안들을 조상전래의 땅에서 쫓아내거나 멸족시키고 그들의 령토를 빼앗는 방법으로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영국의 기본주민집단에 속하는 앵글로색슨족은

5세기 중엽에 도이췰란드의 서북부와 단마르크 등지로부터 영국땅에로 침입한 북게르만인들이다.

여기에는 앵글로족, 색슨족, 유트족, 프리즈족이 포함되나 그가운데서도 앵글로인들과 색슨인들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성격이 극히 보수적이며 완고한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앵글로색슨족은 브리턴섬의 영국땅도 비좁아서인지 아니면 령토팽창열과 야수적인 침략열이 타고난 민족성인지 물불을 모르고 그야말로 미친듯이 인디안사냥에 나섰다.

그들은 1643년에는 피취토종족을, 1644년에는 수스콰현종족을 멸족시켰으며 1675년－1677년에는 뉴잉글랜드지역에서 밤파노아크종족을 토벌하여 추장 필리프왕을 사형에 처하고 그의 머리를 말뚝에 매다는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영국반동지배층과 앵글로색슨족이민들은 북아메리카에서의 식민지확대를 위해 그 어느 유럽렬강들보다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다른 유럽국가들에서 아메리카에로 이주한자들은 대부분이 《신세계》에서 일확천금하려는 꿈이 실현되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려 하였다면 영국이민들은 이 땅을 아예 타고앉을 잡도리를 하고 달려들었다. 그런 관계로 대부분의 영국이민들은 가족 또는 친척단위로, 혹은 집단적으로

무리를 지어 아메리카지역에로 몰려들었다.

앵글로색슨식인종들은 알곤킨족과의 전쟁, 피쿠오트전쟁(피쿠오트인디안들과의 전쟁), 푸에블로족과의 전쟁, 야마스족과의 전쟁, 필립왕전쟁(파커너키트족과 니프막크족, 나라간쎄트족인디안들의 련합과의 전쟁) 등을 통하여 인디안종족들을 마구 살륙하면서 식민지령역을 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네데를란드, 에스빠냐, 프랑스 등 다른 유럽렬강들의 식민지들을 빼앗아내기 위한 전쟁도 마구 벌려놓았다.

인디안들을 멸종시키고 아프리카흑인노예로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린 영국의 북아메리카식민지들은 점차 자기의 정치경제적지위를 높여나가게 되였으며 미국이라는 나라의 태아는 급속히 자라기 시작하였다.

력사의 고발

《신세계》도, 무인대륙도 아니였다

세상사람들은 아메리카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을 발견한 유럽의 정복자들이 초기에 제멋대로 붙여놓은 《신세계》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있다.

그러나 그 땅은 결코 새로 발견된 《신세계》가 아니였으며 임자없이 남아있던 무인대륙도 아니였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있었고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력사가 깃들어있었다.

북아메리카대륙과 남아메리카대륙 그리고 그 주변의 섬들까지 합하여 총 면적이 4 208만 1 000㎢나 되는 광대한 그 땅에서도 다른 대륙들에서처럼 인간생활이 존재해있었으며 그곳의 사람들도 다른 대륙들의 크고작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들을 세우고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나가고있었다.

그곳에서 아직까지 신인이전의 인류화석이 발견되지 않은것에 대하여 력사학자들은 아메리카땅의 첫 거주자들이 약 수만년전까지 존재하고있던것으로 추측되는 베링그통로를 거쳐 아시아로부터 넘어가 정착한 황인종의 이주민들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있다.

지금의 베링그해협은 당시 아시아와 북아메리

카대륙을 련결하는 통로로 되여있었으며 세계적인 대이주행동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의 일부가 바로 이 륙상통로를 따라 북아메리카대륙에로 넘어가게 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전에 이르러 따뜻해지는 기후관계로 빙하들이 적지 않게 녹아내리면서 바다수면이 높아져 베링그통로가 해협으로 됨으로써 그곳을 통하여 북아메리카대륙에로 넘어간 사람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더는 련계를 가질수 없게 차단되고 격리되였을것으로 보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팔레오-인디안을 첫 조상으로 하는 아메리카원주민들은 그후 다른 대륙의 인간들과는 아무런 련계도 없이 외따로 메소아메리카문화와 인까, 마야문화와 같은 독특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독자적으로 이룩하게 되였던것이다.

지금의 메히꼬, 과떼말라, 엘 쌀바도르, 니까라과, 꼬스따리까 등의 지역을 포괄하는 메소아메리카지역문화의 첫 창조자들인 올메크인들은 신전피라미드들이 둘러선 종교례식광장들이 있는 도시거점들을 건설하였으며 그러한 건축양식들은 그후 모든 메소아메리카국가들이 받아들였다.

올메크도시국가들이 몰락한 후 이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유까딴반도에서는 마야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마야인들 역시 높은 피라미드와 신전들을 가진 대규모도시들을 건설하였으며 천문학을 연구하고 아메리카대륙에서는 처음으로 문자체계를 수립하였다.

오늘날의 메히꼬계곡에 위치하고있던 테오티후아칸은 5세기 당시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도시들중의 하나로서 인구는 무려 20만명에 달하였던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아메리카인디안들은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농작물들보다 그 생산성과 영양가가 훨씬 높은 농작물들을 재배해오고있었고 자체의 문자와 수학체계를 창조하였으며 당시 유럽에서 사용하던 력서보다 우수하고 정확한 력서를 만들어 리용해오고있었다.

대륙의 주인인 인디안들중에서 가장 높은 발전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아쯔테끄인들과 인까인들이였다.

마야족의 계승자들인 아쯔테끄인들은 훌륭한 농부들이였고 건설자들이였으며 천문학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력사가들은 고대아시아의 문명이 쌀에, 고대유럽의 문명이 밀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면 아메리카원주민들의 문명의 기초는 강냉이에 있었다고 말하고있다.

인디안들이 길러내고 개량해낸 곡식인 강냉이는 높은 수확성으로 하여 대륙에서의 인구장성을

가져왔고 사회제도형성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아쯔테끄인들은 강냉이와 함께 락화생, 감자, 담배 등 20여종의 농작물들을 육성재배하고있었으며 1 200여종의 식물과 동물, 광물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그 리용방법을 잘 알고있었을뿐아니라 상형문자표기법에 의한 수많은 종교 및 력사문헌들을 가지고있었다.

아쯔테끄인들과 그 선조들이 마련해놓은 수많은 성새들과 주택들, 사원들을 비롯한 건축물들은 오늘도 사람들을 감탄케 하고있다.

인디안들은 또한 금, 은, 주석, 목재 및 기타 보석을 훌륭히 가공하였으며 아름다운 그릇들과 직물을 생산하고있었다.

아쯔테끄국가의 황제였던 몬테수마가 에스빠냐왕에게 보낸 훌륭한 선물에 대하여 문예부흥기시대의 도이췰란드예술가 듀레르는 《나는 나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지 못하였다.》고 탄복하였다.

아쯔테끄인들은 수학에서 령을 사용하였으며 대단히 편리한 20진법을 쓰고있었다. 그들은 제철법은 몰랐지만 주석과 동의 합금으로 도구들을 만들어 리용하였으며 모래를 리용하여 대단히 굳은 금속과 석재를 가공할줄 알았다.

아쯔테끄인들과 함께 자신들을 《해의 아들들》로 일컫는 인까인들 역시 매우 높은 경지의 문화

를 창조하고있었다.

그들은 해발 3 000～4 000m의 안데스산줄기일대의 동서남북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있으면서 아쯔떼끄인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비료를 사용하였으며 거대한 관개체계를 건설하고 강냉이와 감자를 기본으로 하는 높은 농경문화를 창조하고있었다.

그들도 아쯔떼끄인들처럼 비록 철은 몰랐지만 오늘의 야금업자들도 감히 밝히지 못한 비법으로 동과 주석을 철보다 더 굳게 열처리하는 방법을 알고있었다.

인까인들의 직조술과 도자기제작기술, 조각 및 회화수준은 대단히 높았으며 그들이 가지고있던 외과의술 역시 당시 유럽의 외과치료수준을 무색케 하는것이였다.

훌륭한 건축가, 석공들이였던 인까인들이 꾸스꼬에 건설한 태양신의 장엄한 사찰(산중에 건설된 절간)은 그 장식에 있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였다.

인까인들은 200t에 달하는 석재를 절벽에서 떼여내고 그것을 산과 강을 건너 25～65km의 거리에까지 운반한 다음 그 틈새기가 전혀없이 지어는 면도칼날과 물도 습새여 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꼭 맞추어 건축물을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까인들이 산과 강을 서로 횡단하면서 건설한

대도로는 인류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장 유용하고 웅장한것의 하나로 되는 훌륭한 도로로 평가되고있다.

아메리카원주민들은 무사, 상인, 승려, 평민 그리고 노예로 이루어진 엄격한 신분제도를 가진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자기발전의 길로 나아가고있었다.

이렇듯 장구한 기간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의 련계가 없이 자기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과정을 거쳐온 서반구지역에 바다길이 열려짐으로써 15세기까지 지속되여오던 다른 대륙들과의 격폐상태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히게 되였다는 사실자체는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만약 유럽의 백인들이 이처럼 훌륭한 문화를 가진 인디안들과 참다운 친선과 협력을 원했더라면 《신세계》의 발견은 말그대로 신세계와 구세계를 련결시킴으로써 인류발전과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을것이다.

하지만《신세계》의 원주민들로부터 정식 초청장을 받은 친선의 사절도 아니고 답사단이나 통상교역대표단도 아닌 불청객들에 의한 《신세계》의 발견은 이 거대한 미지의 대륙에 불행을 안아온 화근으로 되였다.

유럽인들이 제멋대로 《신세계》라는 이름을 붙인 바로 그날부터 이 대륙의 인디안들은 참혹한 비극의 력사를 엮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 것이다.

《흑상아》가 된 노예들

영국의 북아메리카식민지들이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흑상아》로 부르며 그들을 아메리카대륙으로 끌어와 노예로동을 무자비하게 강요하여 그들의 피땀을 짜낸데 있었다.

지금도 아메리카대륙에서는 수많은 흑인들이 혹심한 인종차별을 받으며 생활하고있다.

아프리카흑인들의 후손들인 그들은 이 대륙의 원주민이 아니라 흑인노예선에 실려 아프리카로부터 아메리카로 끌려온 흑인노예의 후손들이다.

그렇다면 《신세계》의 발견당시 앵글로색슨인들의 모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노예제도가 어떻게 되여 그들에 의하여 이 대륙에 생겨났으며 어떻게 되여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노예가 되여 수입되게 된것인가.

이미전부터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의 식민주의자들은 로동력으로 리용하기 위해 흑인들과 무어인(아랍인)들을 노예화하고있었다.

그후 그들은 자기들의 아메리카식민지들인 신에스빠냐와 브라질에로 노예제를 확대하여나갔다.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은 유럽인들로부터 얻은

천연두를 비롯한 질병들에 대한 면역이 매우 약하여 급격히 사망하였으므로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은 로동력수요를 도무지 충족시킬수 없었다.

처음 영국담배농장주들은 본국에서 온 계약로동자들에게 의거하여 로동력문제를 해결하였으나 그것도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부터 그를 대신할 다른 로동력원천을 찾아내야 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해결을 아프리카노예로동력에서 찾고 대규모의 흑인노예무역을 시작하였다. 17세기말에 가서는 흑인노예제가 북아메리카에서 경제적체계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던것이다.

당시 영국식민주의자들 그 누구도 아프리카인들과 그 후손들을 영원한 노예로 삼는데 대하여 추호의 의문도 가지지 않았으며 지어는 인종주의적론거로 그것을 합리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후날 미국의 대통령으로 된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2년에 한번씩 자식을 낳는 녀성노예가 농장에서 제일 훌륭한 남자노예보다 더 큰 리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그 녀성노예가 생산해내는것이 자본을 보강해주는것이라면 남자노예의 로동력은 소모되여 없어지는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이에 대한 완전한 리해관

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백인노예주들은 흑인노예들을 저들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흑상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인디안노예들보다 높이 평가하였고 그 가격도 인디안노예는 5£ 로 정하였지만 흑인노예는 약 75£로 매매하군 하였다.

노예의 원천지는 아메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적도아프리카의 서해안지역이였다.

노예상인들은 흑인노예사냥을 위하여 탐욕스러운 경쟁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잠비아, 기네－비싸우, 기네, 시에라레온, 리베리아, 세네갈 등의 해안지대들에 제놈들의 항구와 대리점들을 설치해놓고 거기에 노예사냥을 위한 무장대까지 배치하고있었다.

노예수렵자들은 사방에서 강제로 끌어온 흑인들을 몇명씩 철사로 묶어 노예선들이 기다리는 항구들까지 수백km이상의 거리를 도보로 끌어다가는 노예선들에 짐짝처럼 실어 대양건너 아메리카의 노예주들에게 팔았다.

수송도중 배안에서 흑인노예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만큼 가혹한 취급을 당하였다.

도중에 죽은 노예들은 바다에 버리는수가 적지 않았다. 보통 한차례의 항해중에 노예선의 노예 30%가 죽는것은 례상사였다.

식량이나 물이 떨어지거나 노예선이 해적들에게 나포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노예교역자들은 자기의 산 《화물》인 흑인노예들을 상어들이 욱실거리는 바다에 마구 처넣어 배의 속도를 높이였다.

바다의 상어들은 노예선이 지나가는 곳마다에서 떼를 지어 기다리군 하였다.

어찌나 많은 노예들이 수송도중에 생죽음을 당하여 바다길에 내던져졌던지 아메리카로 항행하는 배들은 라침판이 없어도 물우에 떠있는 시체만을 따라가 목적지에 가닿을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무역의 리윤은 한해에 1 000%이상에 달하였다.

당시 노예무역에 리용되였던 노예선 《비너스》호는 3만￡의 비용을 들여 건조했다지만 노예무역을 통해서 20만￡의 폭리를 얻었다고 한다.

아메리카원주민인 인디안들을 무자비하게 살륙한것으로 하여 로동력의 결핍을 느끼고있던 백인농장주들은 마치 소나 말을 사듯이 앞을 다투어가며 흑인노예들을 사들였다.

노예들은 하루 18시간이상의 살인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여야 하였으며 흑인노예들을 부려

먹는 기간은 불과 평균 7년정도로서 기력이 빠진 노예들은 산 《시체》가 되여 쓰레기장에 내버려졌다. 노예들가운데서 늙은이들은 그야말로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흑인노예의 법적지위는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였다.

흑인은 노예소유자의 허가없이 개를 기르고 총이나 양산을 가질수 없었으며 명절을 경축하거나 장례식을 거행하며 큰길로 마차를 타고 갈수도 없었다. 노예들은 장사를 하면 그 죄로 태형을 받게 되여있었다.

노예들에게는 글쓰기와 책읽기가 일체 허용되지 않았으며 백인을 반대하는 행동은 물론 말을 하거나 7명이상의 집단을 지어 우마차를 타거나 백인의 동행없이 농장밖으로 나가는것은 엄격히 금지되여있었다.

흑인노예들이 금지사항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 이것을 먼저 발견한 자유민은 그 누구나 그들의 잔등을 말채찍으로 때릴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었으며 만약 흑인이 구타에 반항하는 경우에는 그를 죽일수도 있었다.

또한 흑인이 허가없이 밤에 나다니거나 말을 타고 다니면 그는 그 죄로 머리를 깎이우거나 얼굴에 락인을 찍히웠다.

흑인들의 가장 중한 범죄는 도주였다. 도주한 흑인노예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자로 간주되여 자유백인이면 누구나 그를 예고없이 죽일 수 있게 되여있었다.

흑인들의 절도행위는 사형에 해당한 범죄로 인정되여있었으며 노예에게 형벌을 가할 때 그가 죽는다 해도 그것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식민주의자들은 가혹한 로동에 시달려 죽은 노예들의 수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흑인노예들을 부단히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노예무역을 하나의 항구적인 기업으로 발전시켰으며 노예상인들을 일약 대부호로 되게 하는 행운을 안겨주었다.

영국의 해군대장 죤 호킨스라는자는 해적으로부터 노예교역자로 둔갑하여 일확천금함으로써 귀족칭호까지 받고 녀왕과 악수까지 하는 대부호로 되였다.

영국인들은 노예무역에서도 역시 첫자리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은《남해상회》라는 회사까지 뭇고 1774년 한해동안에만도 리버풀에서 무려 300척의 노예선을 출항시켰으며 그후 10여년동안에 수십만명의 흑인들을 아메리카에 실어날랐다.

흑인노예무역이 시작되여 50년동안 까리브해

지역에 있는 꾸바, 뿌에르또 리꼬, 아이띠, 져메이커 등과 중앙아메리카의 과떼말라, 니까라과, 온두라스 등에 팔려간 흑인노예는 약 1 500만명에 이르게 되였다.

이 수자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노예수렵자들에 의하여 살해되였거나 대양을 건늘 때 사망한 흑인들의 수가 5대1의 비률이라고 볼 때 아프리카는 무려 6천만명이상의 인구를 상실한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렇게 되여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산설고 물설은 아메리카대륙의 산지사방에 뿌려지게 되였으며 아메리카에서 흑인들의 불우한 노예의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던것이다.

아쯔테끄인들의 예측

콜럼부스가 찾아왔을 당시 《신세계》의 주인들인 아쯔테끄인들은 자기들이 다섯번째 태양시대에 살고있다고 믿고있었다.

오늘도 학자들의 흥미를 끌고있는 그들의 기록에는 지금의 인류가 지구의 다섯번째 인류라고 전해져오고있다.

그에 의하면 이전의 네차례의 태양시대에 살고있던 사람들과 세계는 모두 멸망하였는데 첫번째 태양시대는 괴물들에 의하여, 두번째는 바람에 의하여, 세번째는 불에 의하여, 네번째는 물에 의하여 멸망했다고 한다.

황제와 함께 해와 달 등을 신으로 숭배하던 아쯔테끄인들은 자기들이 생존하는 다섯번째 태양시대는 미구에 폭발할 화산과 지진, 그리고 기아로 멸망할것이며 그 불길한 징조는 동쪽으로부터 밀려온다고 믿고있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렇듯 신통스러운 예측을 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아쯔테끄년력으로 열세번째 부시돌해에 화산이 폭발하고 질병과 기아가 만연하였으며 사나운

맹수들이 어린이들을 잡아먹었고 일식으로 천지가 어두워졌다. 아쯔테끄인들은 조상들이 예언한 자기들의 다섯번째 태양시대의 종말이 바야흐로 시작된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에 잠겼다.

그러나 열세번째 부시돌해에 닥쳐든 진짜 불행은 자연이 가져온 불행과는 다른것이였다.

후날에야 아쯔테끄인들은 자기들이 열세번째 부시돌해라고 부르던 해를 유럽인들은 1492년이라고 부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바로 그해 10월 12일 동쪽에서 온 정체모를 백인나그네들인 콜럼부스일행이 이 대륙에 당도했던것이다.

다섯번째 태양시대에 불행이 닥쳐온다는 인디안들의 당초의 예언은 결코 틀린것이 아니였다.

운명적인 1492년 바로 그해부터 인디안들은 돌이킬수 없는 비극적인 재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막을 올린 독립전쟁

18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북아메리카에 창설된 영제국의 13개 식민지주들과 본국인 영국간의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통치배들은 북아메리카에 이주민들로 식민지를 창설한 첫날부터 본국보다 더 커가고 있는 식민지들의 자립적인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각방으로 탄압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식민지주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발전을 억누르기 위해 영국인선주들에게 식민지들과의 통상에 대한 독점적권리를 부여하는 항해법, 독점가격으로 식민지통상의 모든 리익을 영국상인이 점유하게 하는 통상법, 식민지들에 있는 공장주들에게는 손해를 주지만 본국의 공장주들의 리익은 보호하는 공장법, 식민지들로부터 화페를 발행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식민지출신의 채무자들이 영국채권자들에게 구속되게 하는 재정법 등 불공평한 법질서를 강요하였다.

이것은 13개 식민지주 식민주의자들의 강한 불만을 야기시켰다.

13개 식민지주들은 자기들이 팔거나 사들이는 담배를 비롯한 상품들의 가격을 수만리 먼 영국

의 런던에 있는 자본가들이나 정객들이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며 결정하는것을 지켜보기만 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뿐만아니라 현지 식민주의자들이 애펄레이치산맥너머에로 령토를 넓히고 세력을 확장하는것을 금지하고있는 영국통치자들의 통제와 제동은 식민지령토확장에 미쳐날뛰는 현지투기업자들과 노예농장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더우기 식민지들에 있는 략탈자들의 분통을 터치게 한것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 영국국왕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식민지주립법의회들에서 경제적 및 정치적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결의를 채택하게 되면 영국국왕과 국무상, 왕실총독, 왕실재판소가 항상 그들의 탄원서와 결의, 청원을 무작정 묵살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본국지배층의 이와 같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북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주들은 본국의 통제를 요리조리 회피하며 자의대로 행동함으로써 식민지들에서의 자본주의적생산관계는 오히려 영국에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었다.

13개 주들은 모국이라고 할수 있는 영국이 당시 유럽지역에서 항시적인것으로 되고있던 전쟁의 수렁창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것을

기회로 본국의 전제적인 법령들을 무자비하게 위반하기 시작했으며 산업과 상업의 독자적인 발전과 정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모지름을 썼다.

영국지배계급은 이와 같은 불손한 행동을 허용할수 없었다.

그래서 영국국왕 죠지3세와 왕실관리들은 아메리카지역에서 프랑스세력을 밀어내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식민지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보다 가혹한 법령들을 련이어 발포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혹한것은 1765년 사탕법과 수입인지세에 관한 법령이였다.

식민지가 영국본토보다 더 발전하는것을 원치 않고있던 영국의 통치배들은 식민지산업과 상업의 발전을 억누르고 식민지개척자들을 보다 어려운 처지에 몰아넣기 위해 1765년 반란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식민지에 파견되는 영국군대를 보다 증강하였다.

1761년 식민지수공업자들과 직공상인들, 변호사들을 망라한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조직의 결성을 계기로 식민지주들에서의 영국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항들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서로 악착스럽게 물고뜯는 야수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된것이였다.

1765년 10월 뉴욕에서는 수입인지세법에 관한 식민지주들의 특별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영국상품을 거절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으며 이 법령을 철페하라고 요청하는 탄원서가 영국국왕에게 제출되였다.

식민지주들의 이 공공연한 도전을 반란으로 간주한 영국지배층은 수입인지세법과 다른 법령들을 철페하고는 그 양보에 대한 대가로 군사숙영법을 비롯한 보다 악명높은 법들을 련이어 채택하고 영국군 대부대를 파견하여 식민지들을 억압하는 길로 나아갔다.

1770년 3월 5일 영국군대가 시민들에게 무차별사격을 가한 보스톤진압사건이후 정세는 더욱 첨예화되여갔다. 곳곳에서 영국지배층을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영국의회가 북아메리카식민지들에서의 정세발전을 보지 않고 1773년에 채택한 도발적인 차잎교역법은 반영투쟁의 도화선이 되였다.

식민지에서의 차잎수입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차잎교역법이 채택되자 격분한 보스톤의 일부 주민들은 12월 16일 항의의 표시로 동인디아상회소속 선박 3척을 점거하고 1만 7 000£의 가치를 가진 차상자들을 바다에 내던졌다.

력사에 유명한 보스톤차소동으로 기록된 이 사건이후 영국지배층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새로운 다섯가지 억압적인 법령을 채택하여 보스톤항구를 봉쇄하고 시민들의 집회를 금지시켰으며 마사츄세쯔에 대병력을 주둔시킬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13개 식민지주들에서 분노의 함성이 높아가는 가운데 1774년 9월 5일 필라델피아에서는 제1차 대륙의회가 소집되였으며 거기에 참가한 식민지주대표들은 영국상품에 대한 거절을 선언하고 각 식민지들에 이 대회의 결의를 실시하기 위한 안전보장위원회들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차 대륙의회는 매 식민지들이 인민의 대표들의 의사에 따라 총적으로는 아메리카의, 중요하게는 선거자들의 행복과 안전을 가장 훌륭히 도모할수 있는 정부들을 수립할데 대하여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주기본법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1775년 4월 19일 보스톤부근에서 일어난 영국군대와 이주민무장부대간의 충돌은 아메리카독립전쟁의 발단으로 되였다.

1776년 6월 7일 버지니아식민지의 리챠드 헨리 리는 마사츄세쯔의 죤 아담스의 뒤를 이어 《식민지련합은 독립된 국가이며 또 그럴 권리

가 있다. 식민지련합은 영국국왕에 의한 온갖 예속을 청산하며 또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련계는 해체되여야 한다.》라는 중대한 결의안을 제기하였다.

대륙의회는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즉시에 결의안을 채택하지는 않았으며 7월초까지 그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였다.

같은 시기 토마스 제퍼슨, 죤 아담스, 벤쟈민 프랭클린, 로버트 리빙톤, 로져 셔먼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독립선언문을 제출할데 대한 위임을 받게 되였으며 위원회는 제퍼슨에게 초안을 작성할 기본책임을 맡겨주었다.

독립선언문 초안은 6월 28일에 대륙의회에 제출되였다.

대표들은 4일후 선언문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으며 이틀간 선언문의 일부 문구들을 수정하면서 7월 4일까지 론의를 계속하였다.

아메리카의 이른바 독립전쟁, 대양건너편의 주인들과 입에 칼을 문 현지 략탈자들간의 피비린 결투는 막을 올리게 되였다.

기만적인 독립선언

미국의 독립선언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다.

《우리는 인간이 평등한것으로 창조되였다는것과 조물주가 그들에게 생활에 대한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및 행복을 지향할 권리를 포함한 일정한 떼여낼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것과 어떠한 통치형식이 이런 목적들을 파탄시킬 위협이 있을 때에는 인민은 그것을 갱질 또는 페기하고 새로운 정부를 창설할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그 정부는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원칙우에 창건될것이며 그러한 형식으로 그 권능을 조직할것이라는것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얼핏 보면 참으로 민주주의적이고 정의로운 문장들로 엮어진 선언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기만과 허위로 엮어진 선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사실상 인간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가장 로골적이며 악랄한 형태인 노예제를 주장하는 노예농장주들이 그 무슨 자유와 평등을 떠벌이는것자체가 자유와 평등에 대한 모독이며 우롱이였다.

선언에 지적된 인간, 인민이란 과연 누구인가.

노예의 쇠사슬에 얽매여 초보적인 행동, 지어는 사유의 자유도 없는 흑인들과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정든 보금자리를 잃고 광야를 헤매여야 하는 인디안들도 이 인간, 인민들속에 속하는것은 결코 아니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수천만명에 달하는 인디안들을 멸종시키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산설고 물설은 수만리이역땅에 끌고와 노예로동을 강요하는 날강도들인 앵글로색슨식민주의자들뿐이였다.

미국의 독립을 제창하고 헌법비준회의에 참가한 독립운동의 지도적인물들인 쬬지 워싱톤, 제임스 매디슨, 패트리크 헨리, 쬬지 메이슨, 제임스 먼러우, 에드몬드 렌드르, 죤 마셀,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유명정치가들은 거의 모두가 다 수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있는 대농장주들이였다.

바로 이러한자들이 저들의 목적이 파탄될 위험이 있을 때 《…인민은 그것을 갱질 또는 페기하고 새로운 정부를 창설할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그 정부는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원칙우에 창건될것이며 그러한 형식으로 그 권능을 조직할것이라는것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라고 웨쳐댄것이였다.

독립전쟁시기 남부지역에로 진출하였던 쬬지

아 애트킨스라는 병사가 그곳에서 후날 미국의 초대대통령이 된 죠지 워싱톤의 농장을 보았을 때의 느낌에 대하여 《하느님맙시사. 사회적해방을 위한 인간의 권리를 그렇듯 옹호해나서는것같은 인상을 주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억압행위를, 그것도 가장 잔인한 형태의 억압행위를 할수 있단말인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던것은 결코 놀라운것이 아니였다.

미국독립선언은 그토록 요란한 미사려구로 엮어졌지만 의연히 인종적특권을 신성화하고 있었으며 유색인종에 대한 노예제의 존재를 시인하고있었다. 이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출현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략탈적이고 파렴치한 나라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는것이다.

식인종제국의 출현

미국의 독립전쟁은 영제국을 일방으로 하고 본국을 떠나온 앵글로색슨족의 이주민들을 타방으로 하여 먹이감인 신대륙에 대한 독점적지위를 쟁탈하기 위해 벌린 추악한 싸움이였다.

바로 이 독립전쟁을 통하여 신대륙에 기여든 앵글로색슨이주민들은 원주민인 인디안들의 요람을 종국적으로 허물어버리고 오늘까지 무려 2백수십년동안이나 략탈과 살륙, 무력간섭과 전복음모, 침략과 전쟁의 본산지로 되여오고있는 식인종제국을 끝끝내 출현시키게 되였다.

1776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는 제2차 대륙의회가 소집되고 식민지군의 총지휘자로는 부유한 노예농장주인 죠지 워싱톤이 임명되였다.

대회에서는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이 채택되였으며 그것은 1776년 7월 4일 전세계에 선포되였다.

영국지배층은 저들이 당시 세계최강국이라는 것과 전성기에 있다는 자존심으로부터 무력으로 독립을 이룩하려는 아메리카식민지들의 이러한 시도를 어처구니없는 망동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아메리카식민지들에서 반란을 일으킨

한줌도 못되는 반란분자들을 격파하는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사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아메리카군대 즉 이주민무장부대는 저들이 차지한 지형지물에 익숙했으며 인디안식전법을 적용하고있었다.

한편 날로 승승장구하고있던 대영제국을 아니꼽게 여기고있던 프랑스, 에스빠냐 등 유럽렬강들은 영국의 등뼈를 꺾어버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이모저모로 영국에 압력을 가하였다.

영국군은 이 전쟁이 자기들이 이전에 유럽대륙에서 승리적으로 진행한 여러 전쟁들과는 다른 매우 힘든 전쟁이라는것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식민지들의 독립만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영국과 북아메리카식민지련합간의 싸움은 6년간이나 공방전을 벌리게 되였다.

13개 주의 이주민들은 독립을 지지하는 애국파와 영국을 지지하는 왕당파로 분렬되여 저마다 자기의 리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였다.

지주, 고급승려 그리고 일부 관리들로 구성된 왕당파는 독립을 반대하여 영국군에 가담하였으며 상업부르죠아지와 적지 않은 농장주들은 쌍방에 군수품을 팔아먹으면서 엄청난 리윤으로 돈주머니를 채웠다.

전쟁은 쌍방간에 공격과 후퇴를 거듭하다가 1781년 10월 19일 요크타운에서 영국군대가 항복하는것으로 막을 내렸다.

독립전쟁에서의 식민지련합의 승리는 그들의 군사적재능에 기인되는것이 아니라 사실상 영국군이 범한 오유들에 의한것이였다.

당시 영국수상 노스와 신임아메리카식민지담당국무상 죠지 져메인은 이 전쟁에 대하여 세가지 기본적인 예측을 하였다.

첫째로 그들은 식민지군대가 훈련을 잘 받은 영국정규군의 공격을 견뎌낼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그들과 또 영국군지휘관들은 1776년에 진행할 군사행동들이 이 전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는 군사행동들일것이라고 보면서 370여척의 수송선들에 3만 2 000명의 병력과 막대한 량의 군수물자들을 실어 73척의 함선과 1만 3 000명의 해군병력의 호송하에 북아메리카식민지들에로 파견하였는데 이것은 영국력사상 최대규모의 병력수송이였다. 그들은 얼마든지 북아메리카에서의 독립운동을 말살할수 있을것이라고 보았다.

영국군대내에는 수천명의 고용병들도 있었는데 이 전쟁에 아무러한 리해관계도 없이 돈에 팔려온 이들은 싸움의 가장 관건적인 시기때마다 영국

군의 전투행동들에 오히려 지장을 주군 하였다.

둘째로 영국의 관리들과 장군들은 이 전쟁을 자기들이 유럽에서 성과적으로 치른 전쟁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그런데로부터 그들은 북아메리카의 주요대도시들을 장악하고 자기들의 손실은 피하면서 식민지군대를 결정적으로 격파한다는 판에 박힌 전략을 취하였다.

셋째로 영국은 군사적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그것은 곧 그대로 정치적승리로 된다고 믿고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들은 후날 매우 그릇된것이라는것이 판명되였다. 전장에서의 패배는 북아메리카독립운동지도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정치적목적을 포기하고 강화를 청원하도록 하지 못하였다.

영국은 그후 빠리에서 강화조약에 조인함으로써 미합중국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미국의 독립, 이것은 아메리카에 상륙한 앵글로색슨이주민들과 그 후손들이 남의 땅을 통채로 차지하고 그것을 영원히 제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유와 권리라는 신성한 단어를 도용하여 세운 날강도국가의 출현이였다.

이렇게 되여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였던것이다. 이것은 장차 이 세상 수억만 인민들에게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게 될 가장 파렴치한 제국주의국가의 출현이였다.

끝없는 령토팽창야망

《미국은 우리 다음의 수백, 수천세대들의 후손들에게도 충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대서양해안가에서 태평양해안가까지 이르는 대륙횡단국가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토마스 제퍼슨이 미합중국은 자기의 《자유의 제국》을 확장시켜나가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로골적으로 드러낸 령토팽창야망이다.

령토팽창은 미국의 근본적이며 항시적인 야망으로서 미국의 력사는 령토팽창의 력사라고도 말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일부 력사가들이 미국의 령토팽창원인의 하나를 담배재배지를 넓혀나가는데서 찾고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것이 아닐수 없다.

물론 앵글로색슨이주민들과 인디안들간의 균형을 파탄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담배재배지의 확대에 있은것은 사실이였다.

백인정착민들과 영국의 버지니아회사는 에스빠냐인들에 의해 유럽에 보급된 아메리카작물인 담배가 자기들에게 막대한 리윤을 가져다주는

작물이라는것을 쉽게 인식하게 되였다.

존 랠프라는자가 1611년 처음 이 작물을 심기 시작하였다. 1620년 버지니아식민주의자들은 말린 담배잎을 4만Ib(폰드)수출하였는데 162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그 량이 무려 150만Ib로 급격히 장성하였다.

높은 가격과 함께 재배업자들이 보는 엄청난 리윤으로 북아메리카식민지들에서는 담배재배열풍이 일었다. 그후 일련의 가격파동이 있었지만 아무튼 담배는 버지니아식민지의 번영의 기초로 되였으며 이 식민지는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자그마한 거점으로부터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대규모농업을 가진 정착지로 발전하게 되였다.

담배는 토양의 영양물질을 빨리 빨아먹는 작물인것으로 하여 그 재배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필요로 하였다. 재배업자들은 토지의 비옥도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해동안 밭을 묵이면서 리용하여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자그마하던 영국의 정착지들은 급격히 팽창되기 시작하였으며 담배열풍에 들뜬 재배업자들은 제임스강과 그 지류들의 량안지대에로 밭을 넓히며 앞을 다투어 진출하여나갔다.

그러나 사실상 앵글로색슨식인종들의 북아메리카에 대한 침략행위는 그 어떤 담배재배지

확장에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볼 때 령토에 대한 뿌리깊은 야망에서 시작된것이였다.

광신적인 령토팽창열에 들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식인종들이 처음부터 꿈꾸고 있던 아메리카제국은 대륙의 한 모퉁이가 아니라 대륙전반을 포괄하는 대륙횡단국가였다.

그러기에 독립을 선언할 때 13개 주에 38만 6 000㎢에 불과하였던 아메리카제국의 령토는 19세기 40년대에 이르러 벌써 초기에 비하여 8배나 많은 300만㎢로 팽창되였다.

무력적강탈의 방법으로 앵글로색슨야만들은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인디안들과 그리고 다른 렬강들의 세력들을 밀어내면서 버지니아, 뉴욕, 마사츄세쯔, 뉴햄프쉬어, 죠지어, 메릴랜드, 켄넥티커트, 로드 아일랜드, 뉴져시, 노스캐롤라이너, 사우스캐롤라이너, 펜실바니아 등의 지역들을 련이어 빼앗아내였다.

미국은 이와 같은 령토팽창을 전쟁의 방법으로 그것도 희생이 없이 헐값으로 성취하였다.

독립전쟁후 100년동안 미국이 령토확장에 들인 돈은 약 5 000만US＄, 이것은 뉴욕의 한개 고층건물 건설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너무나도 적은 돈이다.

미국은 이 적은 비용으로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일본, 벨지끄를 합한 면적보다 더

많은 방대한 령토를 획득하였다.

미국팽창주의자들은 이른바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저들은 북아메리카 전체와 남아메리카의 대부분까지 령유하게 되여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앵글로색슨족이 우월하다는 인종론이 골수에 박힌 양키들이 미국은 서반구뿐아니라 전세계도 통치할 사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공공연히 선언한것이나 같은것이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아메리카에로의 이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 죤 윈스로프는 누군가가 그에게 그가 그토록 탐나하는 미지의 그 대륙은 이미전부터 다른 인종의 후손들이 주인으로 살고있는 곳이라고 말해주자 《그 미개한 사람들은 아무러한 권리도, 타당성도 없이 그토록 광대한 대지우에서 어슬렁거리고있다.》라고 하였다.

아메리카대륙에 기여든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에스빠냐나 프랑스, 네데를란드식민주의자들과 매우 큰 차이점들을 가지고있었다.

즉 이 세 나라출신의 식민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서반구의 토지와 사람들로부터 빨리 리윤을 챙겨가지고 본국에로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온 독신자들이였다면 앵글로색슨계통의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많은 경우 이곳에 남아서 끝까지 살 야심을 품고 가족단위로 혹은 이웃부락의 친척,

친우들과 함께 대서양을 넘어 아메리카에로 왔던것이다.

식민주의자들은 인디안들을 가리켜 농사를 짓지 않고 《어슬렁거리기만 하는자》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였다.

토지에 대한 개념에서 인디안들과 유럽인들은 큰 차이를 가지고있었다.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울타리까지 빙 둘러치는 유럽인들, 특히는 영국인들과는 달리 공동경작의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있던 인디안들은 토지에 대한 사적인 개념이 전혀 없었다.

인디안들은 농경지와 사냥지대에 대한 공동소유의 관습을 가지고있었다.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앵글로색슨식민주의자들은 그러한 인디안들의 농경지들과 사냥지대들을 가리켜 《임자없는 땅》이니 뭐니 하면서 인디안들의 토지에 대한 저들의 령유권을 주장해나선것이다.

력사의 고발

황금의 대륙

유렵침략자들이 탐험과 정복으로 타고앉아 아메리카라고 이름한 대륙은 얼래스커로부터 남극지방까지 그 길이가 약 1만 8 000km에 이르는 광활한 대륙이다. 그 면적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친것과 거의 비등하다.

아메리카대륙은 풍요함으로 하여 유럽침략자들에게 있어서 황금의 신기루와 같은 땅이였다.

미씨씨피강류역의 넓고 풍요한 경작지, 카나다의 중부와 서부의 끝없는 전야, 브라질과 중앙아메리카, 서인디아제도의 풍요한 열대식물과 그 재배지, 베네수엘라의 드넓은 대지와 목장지, 뻬루와 아르헨띠나, 우루과이와 빠라과이의 대초원들은 참으로 풍요하기 그지없는 땅이였다.

그중에서도 특이한것은 아직은 유럽과 세계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이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강냉이와 감자를 비롯하여 고구마, 락화생, 담배, 도마도, 호박, 코코아, 파이내플 등 인디안들이 가꾸어온 농작물들과 함께 태평양북부해안과 남아메리카해안의 무진장한 물고기자원 그리고 세계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풍부한 산림자원이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철광석과 연, 망간, 보크사이트, 석탄 등이 가득찬 아메리카는 거의 모든 금속들과 광물들의 거대한 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탐욕스러운 침략자들은 아메리카대륙이 자기들이 찾아 떠난 동방의 신비로운 나라 인디아와는 대비도 안되는 거대한 황금대륙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래서 침략자들은 발길이 닿는 그 모든 땅을 저들의 령지로 만들고 그 땅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인디안들모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총칼을 휘두르며 그야말로 미친듯이 덤벼들었던것이다.

무자비한 인디안소탕전

《인디안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지극히 성실하여야 하며 그들의 동의없이 그들에게서 재산도 땅도 빼앗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미합중국이 형성된 직후인 1787년에 발표된 《정부정령》의 한 구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공명정대하고 인도주의적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반동적이며 위선적인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문서이다.

오히려 당시 미국의 곳곳에서는 그 정령을 거꾸로 해석하는듯이 《야만인들은 떠나야 한다.》, 《인디안들은 죽어야만 한다.》는 앵글로색슨인들의 거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으며 지어는 련방정부청사안에서도 크게 울려나오고 있었다.

기름진 땅에 대한 탐욕과 인디안들에 대한 멸시감이 골수에 사무친 백인이주민들과 농장주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인디안들을 불모지로 구축하라고 청원해나섰고 정부는 기다린듯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섰다.

잭슨과 테일러, 해리슨과 같은 인디안소탕에

앞장섰던 살인자들은 그 덕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서 인디안들을 추방하고 살륙하기 위한 야만적인 토벌전과 살륙전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죠지어주의 백인이주민들은 인디안들을 추방하겠다고 한 약속을 하루빨리 리행하라고 미국정부에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련방정부는 인디안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할데 대한 교섭에 착수하여 여러 인디안종족들과 무려 7건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련방정부는 인디안들인 크리크족으로부터는 약 660만ha, 체르크족으로부터는 약 40만ha의 땅을 빼앗아내고는 뻔뻔스럽게도 서부로 떠날것을 강요하였다.

너무나도 파렴치한 백인들의 요구에 체르크족은 《우리 인민은 한치의 땅도 더는 결코 양보하지 않기로 굳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라고 대담하게 도전해나섰고 크리크족도 역시 같은 립장을 취하고 만일 자기 종족의 그 어떤 추장이라도 토지판매조약에 서명한다면 그를 즉시 죽여버릴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련방정부는 일부 추장들을 꼬드기거나 위협하여 억지로 조약에 서명하도록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헐값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디안들로부터 빼앗아냈다.

이에 격분한 인디안들은 자기들의 추장 3명을 단호히 처단하였다.

당시 미국대통령 잭슨은 체르크족과 크리크족들을 미씨시피강 건너편으로 완전히 구축할것을 결심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보증을 하였다.

그는 인디안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게 될 새로운 땅은 《인디안들에게 보장되고 또 담보》될것이며 《초목이 시들어죽지 않고 강물이 말라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들의 소유로 남아있게 될것이라는 허위로 가득찬 약속을 함으로써 인디안들을 기만하였다.

잭슨의 교활한 보증에 이어 감행된 강제추방작전으로 하여 인디안들은 아메리카력사상 가장 큰 비극의 하나로 되는 수천리의 《눈물의 행군》이라는 불행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눈물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그 강제추방의 길이 얼마나 간고하였던지 추방당한 1만 4 000명의 이 종족 인디안들중 4 000여명이 길가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어느 한 출판물은《눈물의 행군》을 거쳐 멤피스에 당도한 인디안들의 참상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였다.

《부상자들과 환자들, 갓난애기들과 늙은이들

은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었다. … 그들이 앞에 놓인 거대한 강을 건느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광경은 일생 기억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눈물이나 한탄의 목소리도 무리속에서는 울리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은 끝이 없었으며 자기들이 구원되리라는 희망을 품은자는 그들속에 한사람도 없었다.》

불과 수년동안에 서부에로의 강제철거는 마침내 종결되여 쵸크터우족, 크리크족, 치카티우족, 케로키족을 비롯한 인디안들은 미씨씨피강동쪽의 광대한 땅을 빼앗기게 되였다.

《눈물의 행군》이 인디안들에게 준 영향은 실로 파국적인것이며 또 재난적인것이였다.

서부지역에 당도한 그들은 생소한 환경과 맞다들리게 되였다.

이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곳과는 너무도 생소한 땅에서 살아야 하였는데 이곳에서 안정을 느낀 사람은 거의나 없었다. 새 땅에서 그들이 보는 동식물들과 자연환경 역시 난생 처음보는것들이였다.

강제철거는 인디안들내부에 모순과 갈등도 생겨나게 하였다.

참을래야 참을수 없었던 일부 인디안집단들은 강도적인 강제이주조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

해나섰다. 그러한 집단들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의 남동부지역에서 생활해오고있던 쎄미놀부족이였다.

신망있는 지도자 오스쎄올라의 휘하에 있던 쎄미놀인소집단은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내놓기를 거부하고 부족내 협정지지세력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섰다.

이주를 강행시키기 위하여 련방군무력이 파견되자 오스쎄올라는 1835년 종족내부분쟁을 억제하고 대통령 잭슨에 의하여 공포된 인디안추방령을 반대하는 준엄한 항전을 개시하였다.

이들의 항전을 제압하지 못하게 되자 토벌군은 정전을 제의해놓고는 담판에 응하여 나온 오스쎄올라를 체포하여 살해하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인디안의 기본력량을 격파한 조건에서 미국정부는 매수니 조약이니 하는 상투적인 수법과 함께 군사적강권을 사용하던 종래의 자세를 버리고 나중에는 공공연하게 토벌대들을 인디안소탕전에 출전시켰다.

국가형성후 령토팽창을 위한 인디안토벌전에서 악명을 떨친자들이 바로 오늘날 《미군의 전통의 화신, 성스러운 상징》이라고 자랑하고있는 미제1사 제5포병련대의 전신인 죠지 워싱톤군의

제5대대였다.

제5대대는 1788년 7월 오하이오주의 한 요새에 배치되여 주변의 인디안종족을 무자비하게 토벌하는 《전공》을 세웠다.

요새지휘관인 하머중좌는 당시 워싱톤의 친구이며 국방장관인 헨리 녹스에게 인디안들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였고 이 보고를 받은 녹스는 인디안들에게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일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녹스의 명령에 따라 제5대대는 1790년 봄에 아직 전복되지 않은 인디안종족들을 반대하는 토벌전을 벌리면서 인디안마을들을 습격하여 무자비하게 불사르고 강탈하였으며 늙은이들과 어린이, 부녀자들까지 가차없이 학살하였다.

도발은 저들이 먼저 걸어놓고는 그에 대항해나서면 마치도 《법》의 요구에 따르는 의로운 행동인듯이 악랄한 군사행동까지 감행하고도 그 어떤 정당한 《보호》와 《방어》인듯이 변명해나서며 력사를 위조하려는 눈감고 아웅하는 미국인들의 수법은 교활한것이였다.

비무장인원이나 다름없는 인디안들을 반대하여 미국정규군이 벌린 토벌전이 얼마였으며

여기에 동원된 병력이 또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다는 알수 없지만 미국에서 출판된 《미국군대략사》에 의하더라도 미군은 정규군으로 조직된 후부터 20세기초까지의 100여년동안에 114차의 전쟁과 8 600여회의 전투를 벌렸는데 그 대부분이 인디안소탕전이였다고 한다.

미국보다 앞서 식민지쟁탈전을 벌려온 서유럽렬강들도 이렇듯 많은 토벌전쟁을 벌리지는 못하였다.

미군은 인디안살륙을 통하여 살인마적기질과 군사행동경험을 련마하였으며 직업적인 살인군대로, 자본주의고용군대로서의 추악한 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미국군대의 야만적인 인디안소탕전은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미국의 서부지역주들인 콜로라도주와 아리조나주, 아이더호주, 유타주, 뉴멕시코주 등지에서 인디안도살전이 벌어졌다.

1865년—1898년기간에 미군에 의하여 감행된 148차의 반인디안군사작전과정에 인디안들은 수십만명이나 학살되여 인디안수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그 나머지 겨우 살아남은 인디안들은 사람못살 불모의 산간오지들로 강제추방당하였다.

인디안들에게 강요된 강제이주조치는 사실상 미씨씨피강 동쪽지역에서 인디안의 존재를 철저히 말살함으로써 이 지역을 인디안이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미국이 국가권력과 군대까지 동원하여 진행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대규모의 인종말살행위였다.

이렇듯 미국의 인종말살행위는《렬등인종》을 소멸하고 아리아인종의 세계를 세워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야수적인 인간대참살로 인류를 경악케 한 악명높은 히틀러도배보다 사실상 근 100년이상이나 앞서서 감행된 악행이였다.

국가형성의 그날부터 《인디안들은 죽어야만 한다.》 《인디안들은 떠나야 한다.》,《죽은 인디안만이 좋다.》라고 지껄이며 인디안소탕전을 벌려온 미국의 력사는 참으로 인디안들의 피눈물나는 수난으로 새겨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력사의 고발

침략의 국호

1776년 독립선언에서 표기하고 첫 법령인 《련방에 관한 조항》에서 《북아메리카합중국》으로 명명한 미국의 국호는 1787년 6월 23일 필라델피아에 모인 제헌회의대표들의 가결에 의하여 《북》이라는 표현은 뽑고 《아메리카합중국》으로 고쳐지게 되였다.

아메리카대륙에 형성된 그 어떤 나라도 아직까지 앵글로색슨인들처럼 오만하게 대륙의 명칭을 자기 나라 국호로 명명한적이 없다.

그러나 신대륙에 건너간 앵글로색슨인들은 국가형성초시기부터 벌써 온 대륙을 삼키고 나아가서는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안고 《아메리카합중국》이라는 이름을 서슴없이 저들의 국호로 내세운것이였다.

미국에 국호가 있다는것자체가 말그대로 신성한 법과 국호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

기만적인 독립선언으로 나라를 세우고 《아메리카합중국》이라는 국호를 붙인 미국은 말그대로 침략의 제국이다.

대륙횡단국가에로

령토에 대한 뿌리깊은 야망은 미합중국이 수립된 이후시기에 와서 더욱더 강렬해졌으며 그것은 그대로 미국의 국책으로 되였다.

제퍼슨이전과 그 이후시기 미국의 대륙횡단국가에로의 령토팽창책동은 그야말로 발광적이였다.

미국에서의 시장경제의 발전도 끊임없는 령토확장과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었다.

1800년경에 미국의 정착지경계선은 뉴욕주의 서쪽에서부터 새로 생겨난 주들인 켄터키와 테네씨를 거쳐 남쪽으로 죠지아주까지 곡선을 그으며 확장되였다.

1820년에 이르러 이것은 다시 서쪽방향으로 지향하면서 오하이오, 인디애너 그리고 북쪽으로는 일리노이스와 루이지아나, 알라바마, 남쪽으로는 미씨씨피주까지 확장되였다.

1860년경에 정착지들은 남서부지역과 서부해안가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1819년에 에스빠냐로부터 플로리다를 빼앗아낸 미국은 1840년대에 텍사스공화국을 합병하고 카나다와의 국경선을 확정하였으며 메히꼬와의 전쟁을 통하여서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그리

고 아리조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853년에 있은 가드쓴병합으로 아리조나주지역의 남부와 뉴멕시코지역을 또 손아귀에 걷어넣었다.

령토팽창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루이지아나지역의 흡수는 미국의 령토를 2배로 확장시킨 참으로 수확이 큰 도박이였다.

미국은 1800년경에 수십만의 미국인들을 새땅을 찾아가는 이주민의 명목으로 풍요한 미씨씨피강류역과 오하이오강류역에로 대대적으로 들이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인디안들의 토지를 빼앗았으며 자기들의 생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미씨씨피강과 오하이오강을 주요수상교통로로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미씨씨피강반의 항구도시 뉴올리언스는 일약 미국경제의 명맥을 틀어쥔 요충지로 되게 되였다.

루이지아나가 에스빠냐가 아니라 다시 프랑스에 넘어갈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감을 안고있던 미국은 나뽈레옹이 서반구에도 자기의 신프랑스제국을 다시 복구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는가하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였다.

프랑스에 통치권을 이양하기 직전인 1802년 10월 에스빠냐관리들은 외국에로 수출하기전 상품들을 뉴올리언스항구에 저장할수 있는 미국의 특권을 취소하였는데 이로하여 미국통치배들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시 미국대통령 제퍼슨은 빠리주재 미국공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대단히 불유쾌한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미국인들이 루이지아나에 시선을 모으고있다.》라고 공공연히 령토야욕의 야심을 드러냈다.

제퍼슨은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뉴올리언스항구를 돈으로 사기 위해 프랑스와 협상중에 있는 로버트 리빙톤을 지원하기로 결심하고 제임스 먼러우(후날 미국 5대대통령으로 됨)를 프랑스에로 파견하였다.

미국회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8만명의 시민군을 모집할수 있다는 권한을 행정부에 주었다.

이해 4월 빠리에 도착한 먼러우는 프랑스가 광대한 루이지아나지역을 불과 1 500만US＄를 받고 팔 용의를 가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당시 자기의 식민지였던 싼또 도밍고에서 일어난 노예들의 봉기를 진압할수 없었던 프랑스의 나뽈레옹은 싼또 도밍고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면서 까리브해지역에 자기의 제국을 복구하려던 꿈과 의욕을 잃고 광활한 령토를 그저 빼앗기는것보다는 헐값으로라도 팔아넘길 결단을 내리고말았던것이다.

4월 30일 광대한 지역을 사들이는 협정문에 수표하는 한번의 펜놀림으로 이룩된 루이지아나의 구매로 하여 미국의 령토는 두배로 늘어났으며 대륙을 가로지른 대륙횡단국가를 위한 서부에로의 확장의 길이 확고히 열려지게 되였다.

루이지아나병합은 프랑스통치배들의 나약성이나 외교적실책으로부터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분명 먹이감을 놓고는 그 어떤 타협이나 흥정도 모르는 미국의 강탈행위였다.

미국의 령토팽창과정은 변강지대들에 대한 팽창과정이였다고도 할수 있었다.

루이지아나병합으로 령토팽창의 구미가 부쩍 동한 미국이 눈초리를 돌린것은 이번에는 메히꼬와 린접하고있던 텍사스지역이였다.

미국의 서부 및 남부에로의 령토확장을 미국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이며 피할수 없는것이라는 인식은 미국인들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후날 텍사스의 합병은《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대륙에서 해마다 수백만명씩 늘어나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우리의 운명적인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라고 하였다.

미국은 이미 지난 수십년전부터 이러한 생각

을 품어오고있었으나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과정을 촉진시키고 또 령토적요구를 충당하기 위한 전쟁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소리들을 더욱더 높이기 시작하였다.

북부나 남부, 민주당이나 위그당 할것없이 령토팽창에 환장이 된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국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며 이 세계에서 특수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관점을 가지고있었다.

국회하원 의원인 리챠드 윌드는 《지난 시기에 우리가 체험한것처럼 우리는 결코 신이 계시한 운명을 변화시킬수 없는것이다.》라고 떠벌였다.

그들은 새로운 령토의 획득은 《행운을 타지 못한 그리고 렬등한》 사람들에게 미국식공화주의적정권체계를 이식시키며 그들에게 《진정한 문명》을 가져다줄것이라는 론거를 내댔다.

이러한 팽창주의자들에게 오래동안 앞을 막아나선 장애물들도 있었다. 그중에는 바로 오늘날의 텍사스주령토와 오클라호마주, 캔사스주, 콜로라도주, 워밍주, 뉴멕시코주지역의 일부 지역을 망라하고있던 텍사스공화국이 있었다.

원래 이 지역은 메히꼬령토의 한 부분이였다.

1821년 에스빠냐로부터 독립한 후 메히꼬정부는 풍요하면서도 정부와 멀리 떨어져있는 자기

나라 북부지역 주들의 발전을 적극 장려하면서 일명 《엠쁘리싸리오》라고 불리우는 정착민들에게 헐값으로 토지들을 제공해주었다. 이것을 악용한 미국의 앵글로색슨이주민들은 메히꼬국가의 국민으로 될것이라는 거짓공약을 하고 처음에는 200세대이상이, 후에는 3만 5 000여명이나 텍사스지역에 기여들어 정착하게 되였다.

이 새 정착민들은 지역에 이미전부터 존재하고있던 법률을 무시하였으며 원래부터 살고있던 메히꼬인들을 억압해나섰다.

여기에 심한 우려를 느낀 메히꼬의 통치자인 싼타앤너가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자 앵글로색슨이주민들(텍사스인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메히꼬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미국이주민들의 소요를 진압하였다.

미국은 때를 만난듯이 메히꼬군대에 의하여 사살된 미국이주민들의 복수에 대해 떠들면서 《앨러머우를 잊지 말자.》라는 말을 주제가처럼 내들고 메히꼬와의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그해 말 마침내 텍사스가 메히꼬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고 영국과의 동맹을 맺기 위한 회담을 시작하는것과 함께 태평양해안까지 자기들의 령토를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자 미국대통령 테일러를 비롯한 미국의 통치배들은 텍사스공화

국을 합병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테일러는 1844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면서 미국은 평화적으로 할수 있다면 평화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면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텍사스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해 10월 미국회의 상하량원은 텍사스의 미국이주민들의 통합제의안을 찬성하였으며 마침내 텍사스지역은 미합중국에 통합되였다.

텍사스의 병합은 메히꼬지도자들을 격분시켰다.

그들은 즉시 미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였다.

미국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폴크는 미군무력이 이전에 텍사스인들이 유지하고있던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하고 경계근무에 들어갈것을 명령하고 이것이 메히꼬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자 국회에 선전포고를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미국이주민들이 당하고있는 《고통》을 운운하면서 분쟁지역에서는 이미 메히꼬군대와 충돌한 미국인들의 《피가 흐르고있다.》고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얼마후 저들의 도발에 메히꼬가 단호한 립장을 취하자 폴크는 《전쟁은 메히꼬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였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이 손에 무장을 잡을것을 명령하였다.

1846년 5월 국회는 미국은 메히꼬와의 전면전쟁에 정식 들어간다는 선전포고를 하였다.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지역의 인구밀도가 희박한 지역들에로 진격한 미군무력은 아무러한 저항도 받지 않은채 싼따페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메히꼬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벌리고있던 미국이주민들과 2개의 미해군 분함대와 합세하여 캘리포니아지역에서 통제권을 차지하게 되였다.

메히꼬의 저항은 완강하였으나 미군은 1만 4 000명의 병력으로 마침내 메히꼬시를 점령함으로써 전쟁을 종결지었다. 1848년 2월에는 과달루프 이달고에서 메히꼬로부터 협정문을 받아냄으로써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오늘의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주지역을 포함)지역을 차지하게 되였으며 텍사스지역의 경계선을 리오 그랜데강으로 확정할수 있게 되였다.

전쟁으로 5만명의 메히꼬인들이 사망하였으며 그때에 생겨난 메히꼬-미국간의 적대감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게 되였다.

이런 사기와 략탈의 방법에 의해 미국의 령토는 오늘에 이르러 938만 3123㎢에 달하게 되였다.

미국은 마침내 그처럼 갈망하던 대륙횡단국가로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사기와 협잡, 공갈과 협박, 류혈과 희생으로 얼룩진 미합중국의 령토팽창야심은 아직도 끝과 만족을 모르고있다.

저들끼리 벌린 남북전쟁

1861년 4월 11일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라고 부르는 국내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남부군이 사우스캐롤라이너 챨스톤근방에 있는 련방군의 한 포대에 포사격을 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전쟁을 일으킨 남부농장주들은 전쟁목적이 미국령토의 4분의 3이나 되는 넓은 땅인 남부지역의 주들을 련방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사실상 남북전쟁은 약화되여가는 남부의 노예소유자계급인 농장주들과 상승하는 북부의 산업자본가들사이에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였다.

미국령토가 팽창됨에 따라 남부의 농장주들은 늘어나는 광활한 땅들에 노예소유제도를 확대하려고 하였고 반면에 북부의 산업가들은 남부농장주들의 세력을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자본주의를 더 이상 발전시킬수 없다는데로부터 그 지역들을 노예제가 없는 《자유로동》의 령토로 만들것을 획책하고있었다.

당시에 이르러 노예제로동은 부르죠아지들에

게 있어서까지 사회정치적으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버림받는 형태로 인정되였으며 또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조건에서 경제의 기본체계로는 더더구나 될수 없었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러 노예들의 봉기와 함께 남부백인집단내부에서도 노예제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운동이 고조되고있었다.

물론 미국의 남부와 같은 일부 지역들에서 목화나 사탕수수와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노예제가 깊이 뿌리박혀있었지만 날이 감에 따라 프랑스와 에스빠냐, 영국의 식민지들에서는 노예제가 련이어 페지되고있었다.

1780년대에 들어와 미국에서도 독립의 상승된 기분으로 북부의 거의 모든 주들과 교구들에서는 노예제를 페지하는 운동이 하나의 류행처럼 파급되였다.

이런 속에 진행된 1852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농장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후보자 피어스가 북부산업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위그당후보자인 스코트를 타승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남부농장주들은 선거에서 자기들이 대승리를 거둔 후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최고재판소가 자기들의 수중에 있다고 간주하고 북부산업가들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으로 넘어갔다.

1850년과 1857년에 미국회는 미씨씨피강 서쪽의 전지역에 노예소유제도를 확장하는 문제를 다시 들고나오면서 북부기업가들에 대한 장려금을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2년후에는 노예제를 눈감아줄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노예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할 권리가 국회에는 없다는것을 결정하였다. 얼마후 국회는 노예살이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지향하여 노예주들의 마수에서 탈출한 노예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미전에 나왔던 《도주노예에 관한 법령》을 더욱 가혹한것으로 개악하였다.

피어스 다음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뷰캐넌 역시 남부농장주들의 리익을 옹호하면서 농장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농가폐지법제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상원은 노예제가 미합중국의 전지역에 걸쳐 합법적이라는것을 선포하는 결의를 통과시키는데까지 이르렀다.

련방정부와 국회가 남부농장주들의 리익만을 옹호해나서게 되자 그 반대세력들은 점차 힘을 합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링컨을 대통령으로 선거하기 위한 지반이 형성되게 되였다.

그러나 북부의 자본가들은 이때까지도 자기들의 주요한 리해관계가 노예제의 완전한 폐지에

있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그것이 로동자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줄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고있었다.

북부부르죠아지의 대표자인 링컨 역시 노예제를 제한하며 그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립장만을 견지하고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진행된 1860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북부산업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북부산업자본가들의 리익을 완전하면서도 철저하게 대변하는 인물인 링컨의 당선은 남부농장주들을 당황케 하였다.

그런데로부터 데이비드 제퍼슨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농장주들은 련방으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노예제국가를 수립하는것이 자기들의 유일한 출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이 고안해낸것이 각개탈퇴전술이였다.

당시 노예제지지세력의 본거지였던 사우스캐롤라이너주가 먼저 1860년 12월 20일 합중국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뒤이어 미씨씨피, 플로리다, 알라바마, 죠지어, 루이지아나, 텍사스주의회들에서도 합중국으로부터의 탈퇴결정을 채택하였다.

련방에서 탈퇴한 남부농장주들의 목적은 일부 주들의 독립을 달성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남부지역 주들에서만이라도 노예제를 유지확대하며 그것을 영구화하기 위한데 있었다.

남부지역 주대표들은 1861년 2월 4일 알라바마주의 몬트고메리에 모여 새로운 국가인 《아메리카련방》수립을 선포하고 데이비드 제퍼슨을 남부련맹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독립적인 국가기능을 인정할것을 요구하면서 4월에 북부를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남부의 노예주들과 북부의 산업부르죠아지들사이의 전쟁인 미국의 남북전쟁이 시작되였다.

당시 남부에는 900만명의 주민이 살고있었으나 북부는 인구가 2 200만명으로서 백인주민이 남부보다 4배나 더 많았다. 따라서 남부에서는 130만명의 군대를 모집했으나 북부에서는 289만 8 000명을 군대에 징모할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보아도 당시 합중국의 총 재부중 북부의 몫은 약 110억US＄였고 남부의 몫은 그 절반인 50억US＄뿐이였다.

인적 및 물적자원에서 북부는 남부보다 훨씬 더 강대하였지만 링컨은 1년반동안이나 노예들을 해방시켜 사태를 역전시킬 결심을 하지 못하였다.

그는 련방을 보위하고 유지하는것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인정하였으나 노예해방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있었다.

그런데로부터 북부는 군력과 인적 및 물적자원보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매우 피동적이였다.

사실상 링컨의 동요는 북부자본가계급의 동요를 반영한것이였다. 흑인을 해방시키려 하지 않고 그들을 군대에도 받지 않는 링컨의 정치적소심성과 우유부단성은 전쟁시초부터 련방정부를 심히 약화시켰으며 전쟁의 목적을 위선적으로 은폐하고 남부농장주들의 최대의 약점인 노예제도자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전쟁이 개시된지 거의 2년이 되여오는 1863년 1월 링컨은 노예제도를 페지할것을 요구하는 진보세력의 압력과 그리고 날로 악화되여가는 전쟁정세의 요구로부터 하는수없이 《해방선포문》을 발표함으로써 흑인노예《해방》을 선포하게 되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865년 1월에 가서 미국회는 강력한 사회적압력하에 노예제를 금지하는 헌법수정보충문 제13조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노예제의 페지는 전쟁의 성격을 일순간에 변경시켰다.

1862년 9월에 흑인들에게 군대에 복무할수 있

는 가능성이 부여되자 흑인들은 자기자신들의 해방을 위하여 앞을 다투어 입대를 청원하였으며 전투에서 비상한 용맹을 발휘하였다.

한편 남부주들의 후방에서는 50만명의 흑인노예들이 도주하거나 봉기를 일으킴으로써 흑인들을 군대에 모집하려는 남부의 시도는 파탄되고말았다.

그리하여 전쟁의 형세는 역전되게 되였다.

광범한 근로인민대중과 진보세력의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속에 노예제폐지만이 전쟁의 결말을 결정할수 있다는것이 인식된 후에도 링컨은 《만일 노예제를 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대체로 악이란 없을것이다.》라고 말은 늘어놓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나는 대통령의 직위가 그러한 판단과 감정을 지침으로 삼으면서 공식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나에게 준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내놓고 실토하는 형편이였다.

1865년 4월 9일 남부련맹이 수도로 정하였던 리취몬드는 드디여 함락되고 남부군은 아포매톡스에서 북부군사령관 그란트에게 항복하였다. 그후 수주일이내에 남부의 데이비드 제퍼슨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4년동안 진행된 남북전쟁은 드디여 막을 내리게 되였다.

남북전쟁의 피해상은 막대한것이였다.

량측 군사인원의 사상자는 도합 100만명을

넘어섰는데 당시 미국의 인구가 3 100만명였다는 사정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수자가 아닐수 없었다.

북부군에서는 약 36만 4 000명의 병사들이 사망하였으며 27만 5 175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부군에서도 25만 8 000명의 병사들이 사망하였으며 거의 그만한 수의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다.

물적 및 재정적인 손실 역시 엄청난것이였다.

전쟁기간 북부의 차관과 세금총액은 무려 3조 US＄에 달하였으며 전시채무는 2조 800억US＄에 달하였다. 남부련맹 역시 2조US＄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있었으며 주택들과 농작물, 집짐승들을 비롯한 재산손실액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미국에서의 남북전쟁은 본질에 있어서 서로 대립된 두 착취방식의 충돌이였으며 공업자본가와 농업농장주간의 싸움이였다.

전쟁이 끝난 후 닷새가 지나서 링컨은 워싱톤의 포드극장에서 남부농장주들의 비밀조직성원인 죤 윌크스 부스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

미국에서의 남북전쟁은 봉건적체제를 일소하고 부르죠아지의 경제적 및 정치적지위를 공고히 하며 자본주의적발전의 중요한 장애물이였던 노예제를 페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그것은 겉치레에 불과한것이였다.

노예해방선언의 진상

사이비력사학자들은 미국에서의 남북전쟁은 노예제도를 철페시키기 위하여 일어난것처럼 말하군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링컨을 노예해방의 《영웅》으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착취와 략탈의 천국인 미국을 미화분식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한것이다.

물론 당시 노예제도를 둘러싼 문제가 미국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있었던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에서의 노예제도와 인종주의는 너무도 뿌리깊은것이였다.

독립전쟁이후시기부터 미국에는 극단적인 인종주의리론들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백인들은 이미전부터 노예들은 자기들보다 렬등하다고 간주해왔고 그에 편승한《영향력있는》 문필가들은 그러한 《렬등》은 환경적요소에 그 원인이 있다는 괴이한 리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노예들은 덜 완성된 인간들이며 공화주의적평등의 원칙은 오직 백인들에게만 적용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인종주의자들은 1781년에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것처럼 《흑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백인들보다 렬등하다.》고 주장하면서 흑인들은 천성적으로 라태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성적으로 란잡하고 특히 흑인남성들은 백인녀성들을 탐나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던 그 반대현상 즉 백인주인들이 자기들의 녀자노예들을 어떻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착취해먹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책은 커녕 오히려 이것을 응당한것처럼 여기였다.

18세기를 넘어 19세기도 절반나마 흘러간 당시에 이르러 노예제도는 더이상 지속될수 없는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질곡으로 되였다.

그러나 남북전쟁이 터진지 몇달이 지나도록 링컨은 근본문제인 노예제도철페를 외면하고 그에 대한 발언을 최대로 삼가하였다.

그것은 그가 초기에는 노예제도철페를 구태여 제기하지 않고서도 남부에 위협을 가하여 남부를 합중국에로 복귀시키고 전쟁을 종결시키는것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더구나 링컨은 애당초 노예해방을 실현할 의지가 꼬물만치도 없었다.

그는 또한 노예해방이 실현되게 되면 값눅은 로동력이 로동력시장에 출현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치렬한 미국의 생존경쟁마당에서 백인들의

리익이 침해당할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있었다.

《백인들의 뛰여난 대통령》이라는 평을 받고 있던 링컨이 마지못해 처음으로 노예제문제에 대한 발언을 시작한것은 1862년 3월이였다.

그는 그때 노예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다음 해방된 노예들은 미국령토밖의 다른 지역들에로 내보낼것을 골자로 하는 점진적노예해방주장을 들고나오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 분렬보다는 … 나을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링컨은 미국의 흑인노예들을 해방시켜주되 그들을 미국령토내에 놓아두지 않고 중앙아메리카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들에 보내여 그 지역들에 대한 식민화를 실현할데 대한 기약도 없고 또 현실적가능성도 희박한 계획을 강하게 들고나왔다.

국회내 한 공화당그루빠가 전쟁에 보다 더 진공적으로 림해나설것을 요구해나서자 링컨은 급진세력의 압력하에 국회로 하여금 남부에서 반란에 리용된 모든 재산을 몰수할데 대한 몰수법을 채택하도록 하면서 만일 남부가 노예들을 합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에 리용하였다면 그 노예들을 모두 몰수하여 해방시켜준다는것만을 선포하게 하였다.

그후에 채택된 두번째 몰수법안은 반란을 지지한자들, 설사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남부련맹정부에 세금을 바친자들의 재산까지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그러한자들의 노예들은 《영원히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며 다시는 노예로 될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말하자면 링컨은 노예해방을 오직 전쟁의 국면을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리용하였던것이다.

《정부가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쓰게 하라! 노예들을 해방시키자! 반란을 분쇄하자!》와 같은 주장도 있었지만 링컨은 거기에까지 나가는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련맹을 구원하고싶다. 만일 노예를 한명도 해방하지 않고도 련맹을 구할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것이다. 또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킴으로써 련맹을 구할수 있다면 나는 역시 그렇게도 할것이다. 또 일부를 해방시켜주고 일부는 그대로 노예로 둬두는것이 련맹구원의 방도로 된다면 역시 그렇게도 할것이다. 내가 노예 또는 유색인들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하는것은 그렇게 하는것이 련맹을 구원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기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링컨의 속심이였다.

1862년 9월 22일 링컨은 두단계로 이루어진 노예해방선언의 첫 부분을 발표하였다.

군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그는 1863년 1월 1일부터 미합중국을 반대하여 봉기한자들의 주들에 있는 모든 노예들에 대한 해방을 선포하였다.

그의 9월선언은 노예들의 해방권리를 선포했다기보다는 남부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자는데 더 큰 목적을 가진 제한된 범위안에서의 조건부적인 노예해방선언이였으며 합중국에 남아있던 전선지역 주들의 노예들에 대한 해방은 외면하고있었다.

그러기에 당시 《뉴욕 월드》신문은 《대통령은 …노예들과 접촉할수 있는 모든 지역들에서는 … 선언이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하였다. 그는 그 선언이 시행되도록 자신의 권한이 발동될수 없는 지역들에 있는 노예들만을 해방시켰을뿐이다.》라고 하면서 《링컨의 선언은 빈구호에 불과할뿐아니라 괴상하기 짝이 없는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국무장관인 시어드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시책이 가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노예들에 대하여서는 해방을 선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방시켜줄수 있는 곳에 있는 노예들은 노예의 처지에 그대로 얽매여둠으로써 노예제도에 대한 우리들자

신의 공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였다.

선언에 의하여 해방된 노예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또 선언의 문구들속에는 흑인들에 대한 극심한 경계감이 내포되여있었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비록 제한적이면서도 명확치 못하고 이상야릇한것이였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실용적의의를 가지고 북부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1864년 6월에 가서야 링컨은 노예제도에 대한 헌법적금지조치를 취할데 대한 주장들에 지지를 표명하고 노예제도를 청산 및 금지시키는 헌법수정안채택을 기본의제로 하도록 지시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링컨은 력사앞에서 《위대한 노예해방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링컨은 그후 자기의 본성을 다시한번 드러내보였다.

대통령으로 재선된 그는 1865년에 노예해방선언은 전시에 취해진 조치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전반적인 노예들을 해방시킬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해방시킬것인가, 혹은 아무도 해방시키지 않을것인가는 재판기관이 결정을 내리게 될것이라고 철면피하게 말하였다.

링컨의 기만적인 노예해방선언의 진상은 바로 이런것이였다.

미국의 진면모 1

합중국이 아니라 식인종제국이다

편집: 김준혁

냇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5(2016)년 4월

ㄱ-683547

전자우편 E-mail: 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5(2016)년

ISBN 978-9946-0-1443-2

9 789946 014432 >